

Rhodia · Solvay 투자유치 포상금 1200만원

KOTRA는 12월26일 2007년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가운데 투자의 질적 수준과 국내 경제기여도가 높은 11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관련유공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을 받은 11개 프로젝트의 총 투자유치금액은 국내 도착기준 4억1500만달러로, 고용 창출규모는 앞으로 3년간 1080여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로부터 고도기술 수반산업 지정을 받은 프로젝트가 5개, UN기구로부터 기술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가 1개로 선진기술 도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100%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의 국내 생산을 위한 프로젝트가 포함돼 앞으로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Rhodia와 독일 Solvay 투자유치에 기여한 울산시 경제통상국 김상채 단장과 Invest Korea 유영렬 전문위원이 각각 1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특히, 프랑스 Rhodia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을 활용해 중국에 투자하려던 것을 유치해 낸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현금지원의 첫 사례로 알려졌다.

또 부산시 김영옥 주무관은 자동차 부품제조에 선진기술을 보유한 스웨덴 Aktiebolaget SKF를 유치해 지역 경제 발전과 기술이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변전소 조기 건설을 지원하고 2006년 여름 집중호우로 토사가 넘치는 피해가 발생하자 직접 현장을 찾는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투자유치를 성사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외국인 투자유치 포상금제도는 투자유치활동 모범사례를 선발해 투자유치활동의 본보기로 삼고, 책임 있는 서비스 실현을 위해 2004년 도입됐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12/26>